

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(Ramp) 설치 등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제 출 자 : 김용상 외 2,208명

나. 소개의원 : 김인호 의원

다. 청원번호 : 제 50 호

다. 접수일자 : 2022. 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. 27.

2. 청원요지

-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장안교IC(Ramp)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 중이나 건설 예정인 동부간선 지하도로의 건설계획에는 장안교IC(Ramp)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출·퇴근시간대 교통마비상태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하건설 예정인 동부간선도로에 장안교IC Ramp(진·출입로)설치를 청원함.

3. 주요내용

- 서울시는 「동부간선도로 지하화」를 위한 기본설계중이며, 현재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상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장안교 IC(Ramp)가 있어 이용 중 임에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

설계 관련 주민설명회 내용 중에는 장안교IC(Ramp) 설치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.

- 그간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용했던 차량이 지하 건설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을 위해 중랑IC(Ramp) 이용하게 될 경우 현재도 만성교통체증상태인 망우로, 한천로의 출·퇴근시간대 교통마비상태를 더 심각하게 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.
- 또한 동부간선지하도로와 GTX B노선의 시설간 간섭 검토 및 현 지상 중랑IC 입구에 계획되어 있는 배연구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함.

4. 청원소개의견 요지(소개의원: 김인호 의원)

-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북균형발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해 「동부간선도로 지하화」를 위한 기본설계 중이고, 관련법이 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(수요일) 휘경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.
- 기본설계 설명내용 중에 현재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상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장안교IC(Ramp)가 있어 이용 중에 있는데도,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주민설명회 내용 중에는 장안교 IC(Ramp) 설치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 Ramp(진·출입로) 설치를 청원하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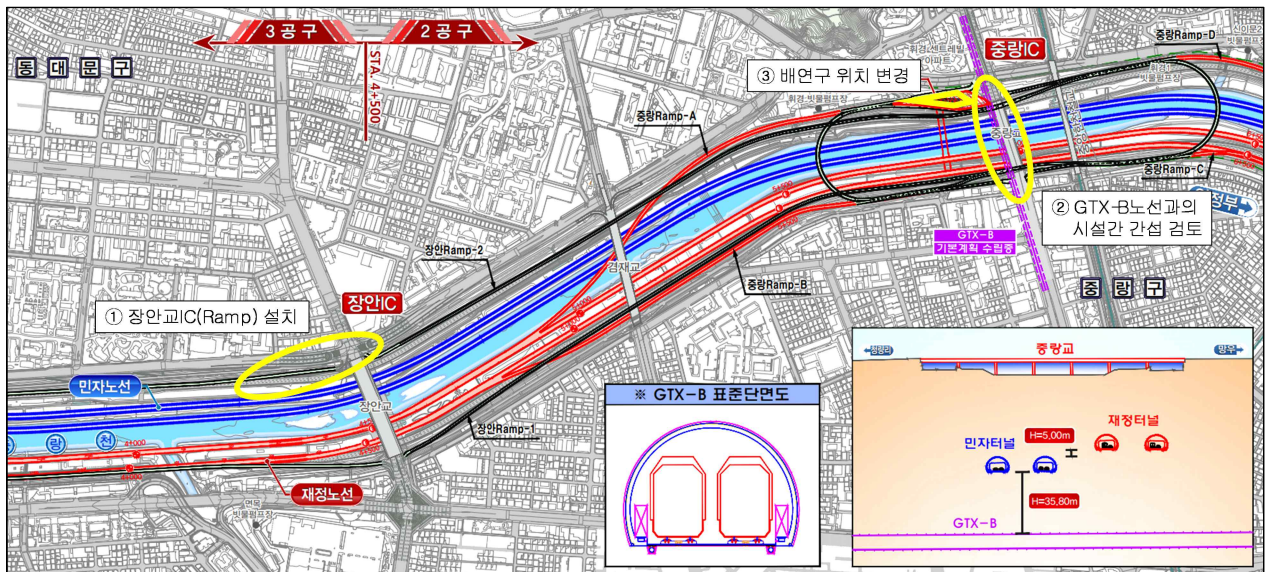
- 문제점 -

1.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설계대로 시공한다면 그간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이용했던 차량이, 지하 건설된 동부간선도로진·출입을 위해서 중랑IC(Ramp) 이용시는 현재도 만성교통체증상태인 망우로, 한천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은 마비상태가 될 것이고, 강남북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투입해 건설하는 지하 동부간선도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.
2.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2016-374호(2016.6.27.)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(인청송도~남양주마석)은 중랑교와 중랑철교 사이 중랑천 지하를 횡단통과하여 지하 동부간선도로와 GTX B노선이 교차하게 되고, 중랑IC(Ramp)도 설치하게 계획되어 있어 시설간 간섭이 될 수가 있는데도 관련된 기관(단체)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기본설계 중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, 동부센터리빌 APT 뒤 설치 배연구(공사중 작업구활용, 공사후 배연구사용) 위치도 변경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청원은 현재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① 장안교IC(Ramp) 설치, ② 중랑교 부근 GTX-B노선과의 시설간 간섭 검토, ③ 휘경센트레빌 APT 뒤 배연구 설치 예정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임(위치도 참조).



[그림] 위치도

- 참고로,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영동대로(경기고앞)부터 동부간선도로(월릉교)까지 지하 40~50m 깊이에 연장 10.1km의 민자터널과 지하 20~40m 깊이에 동부간선도로 송정동부터 당현4교까지 연장 11.4km 그리고 영동대로 학여울역부터 경기고앞까지 연장 2.1km의 재정터널을 건설하려는 것으로,

- 민자사업은 '19년 12월 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'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, 같은 해 9월부터 실시협약 협상에 착수하여 금년에는 실시협약 체결,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,
- 재정사업은 '19년 12월 타당성 조사, '20년 4월 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10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4월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
- 현재 민자터널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, 재정터널은 민자 구간 개통과 연계하여 2028년 영동대로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추후 2034년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.

[표] 사업개요

구 분	민자사업	재정사업
구 간	영동대로(경기고앞) ~ 동부간선도로(월릉교)	동부간선도로(송정동 ~ 당현4교) 영동대로 (학여울역 ~ 경기고앞)
규 모	터널 4차로(병렬), 10.1km	터널 4~6차로(병렬), 11.4km 터널 4차로(병렬), 2.1km
추정사업비	9,261억원	1조 9,839억원
개통예상연도	2028년	2028년 이후



■ 장안교IC(Ramp) 설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

- 동 요청 건은 건설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램프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재정터널구간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당 재정터널 장안IC 남측 진·출입로는 미설치하여도 우회할 수 있는 주변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양호¹⁾한 것으로 분석되어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.
- 그러나 그간 기존 장안IC를 통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(㉠)하던 지역주민들(답십리, 장안동 등) 입장에서는 장안IC에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될 경우 중랑IC(Ramp)를 통해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(㉡)([그림] 참조),



[그림] 답십리, 장안동 등 인근 주민들 동부간선도로 접근 동선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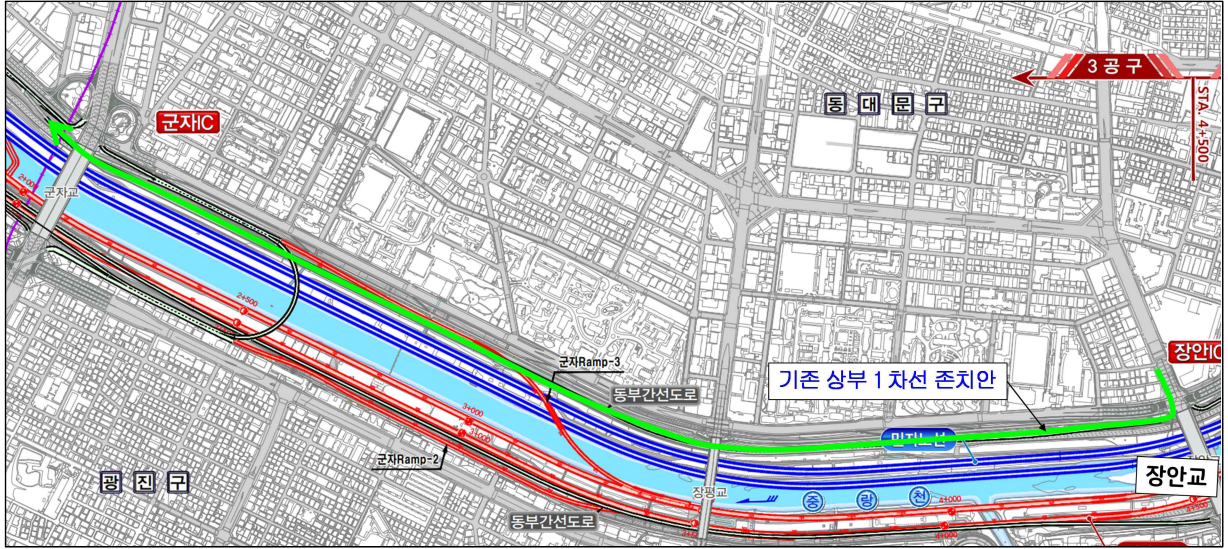
- 1) 동부간선도로(서비스수준 “D”), 동일로(서비스수준 “C”), 망우로(서비스수준 “D”) ※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설계 서비스 수준 “D”

- 중랑IC 접근을 위한 망우로 및 한천로가 현재도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후 동부간선 지하도로 이용을 위한 추가 교통량 증가 시 교통소통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.
- 이에 청원인들은 동부간선 지하화 재정터널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장안IC(Ramp)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나 서울시는 진출입로 추가 설치 시 공사비만 약 1,6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[표] 장안IC 남측 진출입로 터널 공사비 분석

구 분	연장(m)	공사비	비고
구조물	U-TYPE : 170m BOX : 500m	715억원	
터 널	540m	590억원	본선구간 분기부 및 가감속차로 포함
기 계		190억원	
전 기		95억원	
계		1,590억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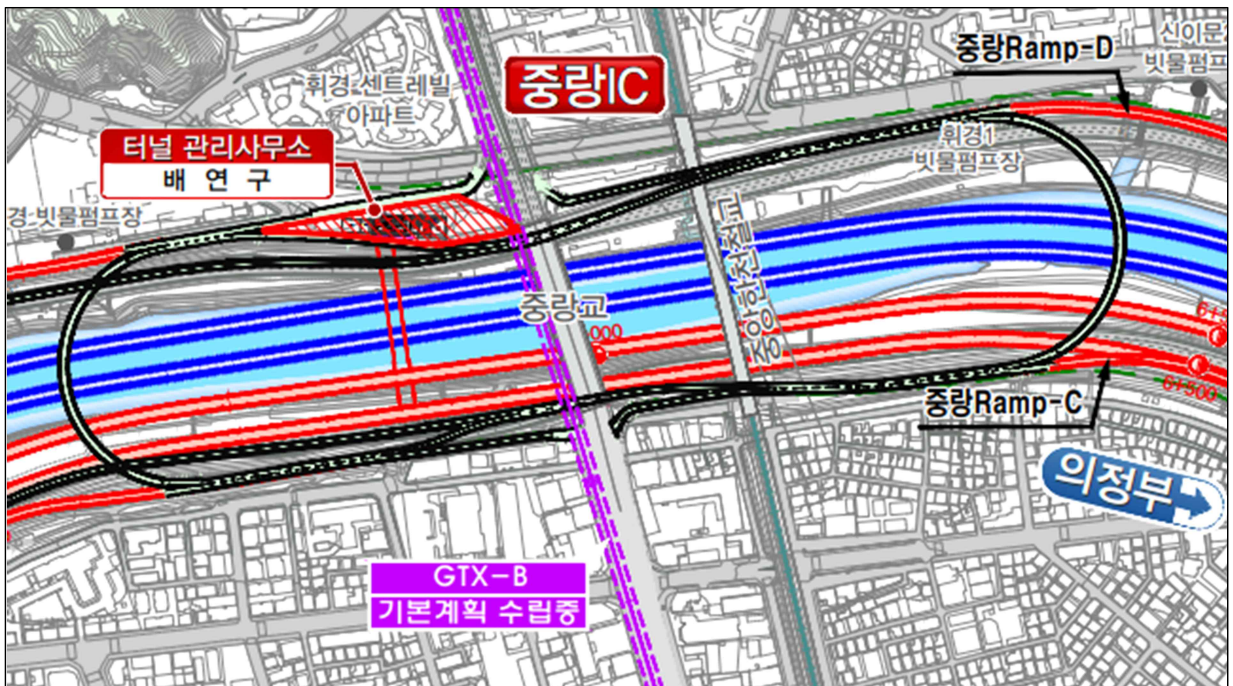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기존 지상 동부간선도로의 한 개 차선을 존치시켜 동부간선도로 남쪽방향으로의 직접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, 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


[그림] 기존 지상 동부간선도로 1차선 존치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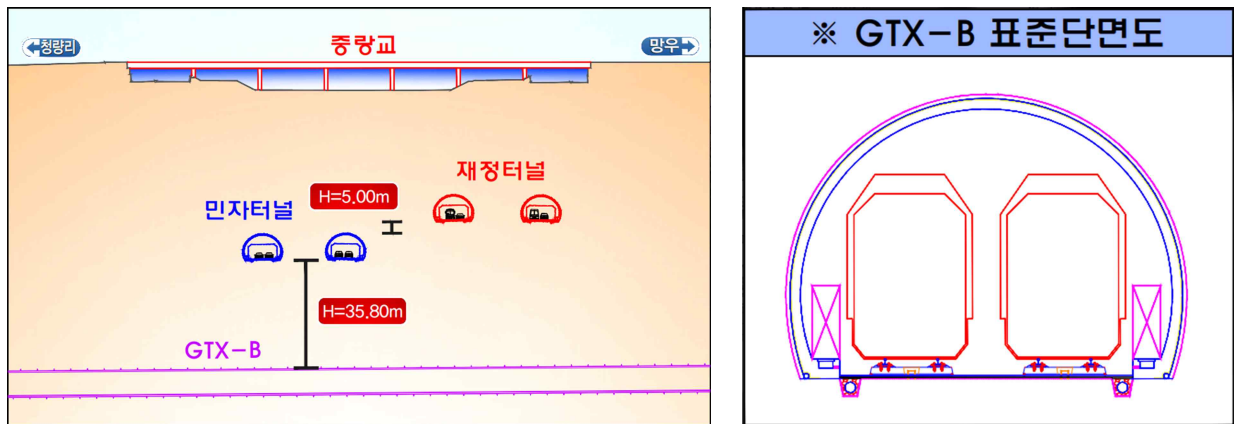
■ GTX-B 노선과의 시설 간 간섭 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

- 동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GTX-B 노선이 중랑천 하저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의 하부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 데 해당 구간에서 시설 간 간섭을 우려해 검토를 요청한 것임.



[그림] GTX-B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교차 구간

-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터널과 GTX-B 노선과는 35.8m의 단차가 확보되어 시설간 간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이와 관련해 시는 GTX-B노선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일부구간을 횡단하게 됨에 따라 2021년 7월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상호 시설이 간섭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는 의견(도로계획과-10245, '21.7.29.)을 제출한 바 있음.



[그림] GTX-B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 심도

- 따라서 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 청원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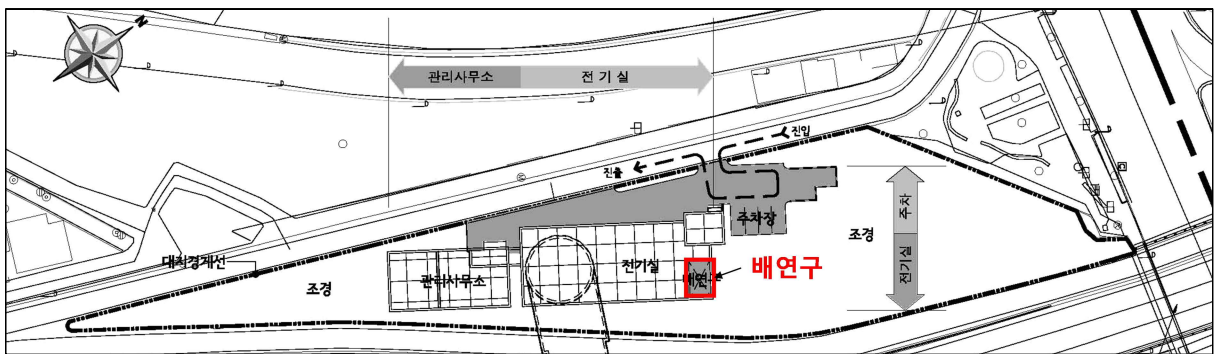
■ 배연구 위치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

- 동 전은 중량IC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“배연구”의 위치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“배연구” 설치 위치와 가장 가깝게 인접한 휘경센트레빌아파트와는 62m 가량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

[그림] 터널관리사무소(배연구) 위치도

- 서울시 의견에 따르면, 설치 예정인 “배연구”는 환기기와 달리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기를 배출하는 연기 배연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평상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며,



[그림] 터널관리사무소(배연구) 평면 배치도

- 설치 예정지인 동대문구 휘경동 8-4 일대는 현재 동대문구 공원녹지과가 작업인원 대기 및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배연구를 포함한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녹지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경관 개선 효과가 나

타날 것이라는 설명임.

- 최근 들어 “배연구” 또는 “환기구” 설치가 주변 주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민 설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바,
- 시는 조속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공사과정에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.